

최언위[崔彦撫]

나말여초 최고의 문장가, 비문을 남기다

868년(경문왕 8) ~ 944년(혜종 1)



1 개요

최언위(崔彦撫)는 나말여초(羅末麗初)에 활동한 문장가이자 학자이며 신라와 고려 두 조정에서 관직을 역임한 관료이다. 신라 말 대표적인 6두품 지식인으로 당에 유학하여 빈공과에 급제하였다. 동시기 두각을 드러낸 문인 가운데 신라의 개혁이 좌절된 후 은둔을 선택한 최치원(崔致遠)이나 후백제 견훤(甄萱)에게 귀부한 최승우(崔承祐)와 달리, 최언위는 고려의 태조(太祖) 왕건(王建)에게 귀부하였다. 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최언위는 최종 승리자를 선택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최언위는 왕조교체기의 격동 한 가운데에 서서 신라와 고려 왕조의 흥망을 두 눈으로 목격한 인물이었다.

2 출신 및 가계

최언위의 선대에서 이름이 확인되는 인물은 최유덕(崔有德)이 있다. 『삼국유사(三國遺事)』 유덕사(有德寺)조에 신라의 태대각간(太대角干) 최유덕이 자기의 집을 회사하여 절로 삼고 절 이름을 유덕사로 지었

는데, 이후 먼 후손인 최언위가 그의 진영을 걸어 모시고 비를 세웠다는 기록이 있다. 관련사료 이를 통해 그의 부계 쪽 선대가 경주에서 어느 정도 사회경제적 기반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 <성주사 낭혜화상 백월보광탑비(聖住寺 朗慧和尚 白月葆光塔碑)>에 최언위의 이름 앞에 '종제(從弟)'라고 기록되어 있어, 그를 비문을 찬술한 최치원의 종제로 보는 견해와 비문의 주인공인 낭혜화상 무염(無染)의 모계 쪽 종제로 보는 견해가 있다. 관련사료 기록이 소략하여 선대나 가문 인물 가운데 이 이상으로 확인되는 인물은 없다.

아들은 최광윤(崔光胤), 최행귀(崔行歸), 최광원(崔光遠), 최행종(崔行宗)이 있었는데, 아들들도 최언위의 뒤를 이어 문적인 능력이 뛰어났던 것으로 보인다. 최언위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중국의 북과 남으로 나누어 유학을 보냈으니, 최광윤은 빈공진사(賓貢進士)로 후진(後晉)에 유학하였고, 최행귀는 오월(吳越)에 유학하였다. 그런데 최광윤은 후진에 유학갔다가 거란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는데, 다행히 재주를 인정받아 거란에서 관직에 등용되었다. 이후 정종(定宗) 재위 시 거란의 사절이 되어 고려로 와서 거란의 침입을 예고해 주는 활약을 하기도 하였으나 관련사료 그 뒤 행적이 전해지지 않아 거란으로 다시 돌아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행귀는 유학에서 돌아와 광종(光宗)의 총애 받는 신하가 되었으나 어떤 일에 연루되어 죽임을 당하였는데, 이 사건을 통해 아버지 최언위의 남아있던 문장이 소실되었을 가능성도 제기된 바 있다. 최광원은 광종대에 비서소감(秘書少監)을 지냈으며, 최광원의 아들이자 최언위의 손자인 최항(崔沆)은 성종(成宗)대 과거에 급제한 후 현종(顯宗)을 옹립한 공으로 중용되어 내사시랑평장사(內史侍郎平章事)를 지내며 권신(權臣)이 되었다. 관련사료 최언위의 집안은 아들대에 번고를 겪기는 하나 손자대에 다시 번창했던 것이다. 신라 말 6두품 가문으로 시작하여 고려 사회의 중심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3 당 유학생 최언위, 신라에 돌아오다

『고려사』에서 최언위의 첫 이름을 최신지(崔愼之)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가 최신지로 활동하였던 때는 숙위학생으로 선발되어 당에 유학하였던 시기이다. 아마 유학 전에는 신라의 국학에서 수학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삼국사기(三國史記)』에 남아있는 기록에는 모두 최언위가 18세에 유학하여 빈공과에 급제하고 42세에 신라로 돌아왔다고 전한다. 그러나 최치원이 작성한 「견숙위학생수령등입조장(遣宿衛學生首領等入朝狀)」를 살펴보면 그가 당에 들어간 시기에 오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관련사료 이 자료에 의거하면, 최신지 등의 8인의 숙위학생이 당에 들어간 시기는 897년(효공왕 1)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그때는 이미 최언위 나이가 30세였다. 즉, 최언위는 전하는 기록과는 달리 18세의 어린 나이가 아니라 30세에 유학길에 올랐던 것이다. 12세에 유학했던 최치원에 비한다면 늦깎이 유학생이었던 셈이다.

그렇다면, 30세에 시작한 유학생들의 첫 결실을 맺은 것은 언제였을까? 최언위가 빈공과에 급제한 것은 그로부터 9년 뒤인 906년(효공왕 10), 39세이던 해였다. 예부시랑(禮部侍郎) 설정규(薛廷珪) 아래에서 급제하였는데, 이때 발해의 재상 오소도(烏素度)의 아들인 광찬(光贊)도 함께 급제하였다. 오소도가 당에 사신으로 왔다가 자신의 아들이 최언위보다 낮은 성적으로 급제한 것을 항의하였으나, 관련사료 당에서 최언위의 학식과 재주가 우수하다는 이유로 순위를 바꾸어 주지 않았다. 오소도는 본인이 유학하던 시절에 신라인 유학생과의 경쟁에서 승리하였던 인물이므로 아들이 신라인인 최언위 아

래에 있는 것을 인정하기 싫었을 것이다. 당시 치열했던 발해와 신라의 성적 경쟁에서 최언위는 명실상부한 신라 최고의 인재임을 스스로 증명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당에서 관직을 받을 수 없었다. 급제한 이듬해인 907년(효공왕 11) 4월에 당이 망해버렸기 때문이다.

그는 혼란기 한가운데 서 있었다. 유학을 떠나기 전 고국 신라는 견훤과 궁예에 의하여 후삼국으로 분열되고 있었고, 유학 간 당에서는 황제가 살해되고 후량(後梁)으로 왕조가 교체되었다. 909년(효공왕 13), 그가 42세가 되는 해에 12년의 유학생살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오지만, 그를 기다리는 미래가 그리 밝은 것은 아니었다. 신라에 돌아온 뒤, 그는 한림학사(翰林學士)로서 집사시랑(執事侍郎)과 서서원학사(瑞書院學士)를 겸하였는데, 이런 관로(官路)는 당시 빈공과 출신들이 밟는 공식 코스였다고 한다. 다만 신라 권력의 핵심에서는 내내 벗어나 있었던 것에서 그가 가진 신분적 한계가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격변의 시대에서 신라의 관료 최언위는 고국의 운명이 쇠락해가는 것을 바라보며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 바야흐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었다.

4 고려에서의 새로운 삶

노년기에 고려에 귀부하면서 그의 인생은 또다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한다. 그런데 최언위가 고려에 귀부한 시점을 언제로 파악하느냐에 따라 그의 정치적 입장에 대한 해석도 다르게 나타난다. 고려 개국과 동시에 귀부한 것으로 보는 견해에서는 최언위를 반신라적인 인사로 파악하지만, 신라 귀부와 함께 귀부한 것으로 보는 견해에서는 이러한 해석을 부인하는 것이다. 다만 924년(경명왕 8)에 신라에서 왕명으로 찬술한 비문의 존재, 그리고 그가 작성한 비문의 내용을 고려해보았을 때, 고려 개국 당시에는 그가 신라에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924년 이후 신라가 귀부한 935년(태조 18) 사이의 어느 시점에 귀부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고려에서 그는 학문과 문한 능력을 충분히 인정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태조는 곧 그를 태자사부(太子師傅)로 임명하여 장자인 혜종(惠宗)의 교육을 담당하게 하였으며, 당시 고려 고위층 자제들이 모두 그를 스승으로 섬겼다. 관련사료 그는 고려 초 고위 지배층의 교육을 통해 고려 사회의 문화적 역량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새로 지은 고려 궁궐 이름 짓기 작업에도 참여하여 당시 궁원(宮院)의 이름은 모두 그가 지었다고 전해진다. 따라서 최언위가 고려 정치에 대한 기대를 가득 담아 고려 초기 궁궐에 천덕전(天德殿), 중광전(重光殿), 상정전(詳政殿), 신덕전(神德殿) 등이라는 명칭을 작명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가 맡았던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고려의 문필을 담당하여 태조를 대신하거나 왕명으로 공식적인 글을 작성하는 것이었다. 이 당시의 중요한 고려의 외교 문서는 최언위의 손을 거쳤으리라 생각된다. 고려 조정에서 그의 문한적 능력이 십분 발휘된 분야는 다름 아닌 비문 찬술이었는데, 그가 77세의 나이로 사망할 때까지 7년 동안 10여 개의 비문을 지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나말여초 비문 찬술에 있어 그는 명실상부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최언위는 944년(혜종 1)에 사망하였고 시호는 문영(文英)이다. 『고려사』에 의하면 관직이 대상 원봉대학사 한림원령 평장사(大相 元鳳大學士 翰林院令 平章事)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그가 죽기 바로 전 해인 943년(태조 26)에 작성한 「정토사법경대사자등탑비(淨土寺法鏡大師慈燈塔碑)」에 나타나는 관직명이

지한림원사(知翰林院事)이기 때문에 위의 관직은 해종에 의한 추증직일 가능성이 높다. 관련사료 최언위는 고려 정계의 요직에 올라 활발한 정치활동을 하지는 못했으나, 신라의 문학과 사상을 고려로 연결하는 중심 역할을 담당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남아있는 자료를 통해서 살펴본 그의 삶은 요동치는 시대의 파도 속에서 비교적 큰 굴곡 없이 흘러갔던 것으로 보인다. 너그럽고 후하다고 평가된 그의 성품은 어쩌면 나말여초의 혼란기를 살아내야 했던 지식인의 유연한 처세의 결과일지도 모르겠다.

5 그가 남긴 것

최언위와 관련한 자료에는 한결같이 글을 잘 지었다는 평가가 남아있고 나말여초 당대의 최고 문장가를 꼽을 때 반드시 최언위는 거론되곤 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명성에 비해 현재 한국 문학사에서 그가 가지는 인상은 흐릿하기만 하다. 이처럼 후대에 그의 문장이 잊혀지게 된 것은 아마도 남아있는 시 한편이 없는 현실 때문일 것이다. 한국 문학사의 비조(鼻祖)로 일컬어지는 최치원과 문명(文名)으로 어깨를 나란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관련하여 현재 남아있는 것은 13편의 비문뿐이다.

연번	비명	비 건립연도	비문 찬술연도(추정)
1	봉림사진경대사보월능공탑비 (鳳林寺眞鏡大師寶月凌空塔碑)	924년(경명왕 8)	924년(경명왕 8)
2	영월흥녕사징효대사탑비 (寧越興寧寺澄曉大師塔碑)	944년(해종 1)	924년(경명왕 8)
3	태자사낭공대사비 (太子寺郎空大師碑)	954년(광종 5)	918년(경명왕 2)
4	서운사요오화상비 (瑞雲寺了悟和尚碑)	937년(태조 20)	937년(태조 20)
5	광조사진철대사비 (廣照寺眞澈大師碑)	937년(태조 20)	936년(태조 19)~ 937년(태조 20)
6	보리사대경대사탑비 (보현사낭원대사오진탑비)	939년(태조 22)	939년(태조 22)
7	비로사진공대사보법탑비 (毘盧寺眞空大師普法塔碑)	939년(태조 22)	939년(태조 22)
8	보현사낭원대사오진탑비 (普賢寺朗圓大師悟眞塔碑)	940년(태조 23)	940년(태조 23)
9	흥법사진공대사비 (興法寺眞空大師碑)	940년(태조 23)	940년(태조 23)
10	명봉사경청선원자적선사릉운탑비 (鳴鳳寺境淸禪院慈寂禪師凌雲塔碑)	941년(태조 24)	941년(태조 24)
11	정토사법경대사자등탑비 (淨土寺法鏡大師慈燈塔碑)	943년(태조 26)	943년(태조 26)

12	오룡사법경대사비 (五龍寺法鏡大師碑)	944년(혜종 1)	943년(태조 26)
13	무위사선각대사편광탑비 (無爲寺先覺大師遍光塔碑)	946년(정종 1)	940년(태조 23)

이 중 위의 3편은 신라에서 찬술하였고 나머지 10편은 고려에서 찬술한 것이다. 신라 경명왕(景明王) 시기 이후 고려 정종 이전에 건립되어 현재 전하는 비문은 거의 그의 작품이라는 점에서 당시 그가 가진 문학적 위상을 짐작해볼 수 있다. 현재 전하지 않지만 유덕사 비문도 최언위가 찬술했다는 『삼국유사』의 기록을 생각해본다면, 실제 그가 지은 비문은 더 많을 것이다. 다만 비문은 공적인 성격이 강한 글이기 때문에 최언위라는 인물을 조명하기에는 자료적 한계가 분명하다. 만약 비문 외에 다른 시문이 남아있었더라면 그의 삶과 그가 가졌던 생각들을 보다 생생하게 들여다 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